

# 與 선대위 ‘한동훈 원톱’ 유력 검토

## ‘비례는 인요한 지휘’ 거론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선거를 총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을 총선 제도로 본격 전환해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을 시점인 만큼 조만간 띄운 선대위 ‘포메이션’을 두고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1일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먼저하고, 그다음 국민의미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차후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당에 온 뒤 국민의힘 상승세를 이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지휘는 ‘상수’다. 특히 여러 명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겼던 과거 사례와 달리, 한 위원장이 ‘원톱’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쓰리톱’ 체제 선대위를 구

성하면서, 한 위원장 원톱 선대위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쓰리톱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쁘지 않다. 재판을 가야 하고 하니 혼자 선거를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불려 나온 당 대표”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이 여러 명이면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다.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이 원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선대위원장은 과거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 같은 원톱 역할을 하기 어렵거나 좀 약할 때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확고한 원톱이 있다. 우리 스트라이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번 선거 출마자 중 분야별 상징성이 큰 후보들이 선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사는 ‘경제통’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이 공동여 영입한 고동진 전 삼성 전자 사장,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상민 의원 등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들에 대해 “선대위에 우리 당에서 확장성, 상징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 최대한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하는 데 함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지역구 선거를 지휘하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아 비례대표 선거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중한 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뛰면서 한 위원장과 지역구·비례 ‘쌍끌이’에 나서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혁신위 활동을 통해 국민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다 ‘호남 출신’ 상징성도 있는 인 전 위원장의 비례 선대위원장 등판은 여론의 호남 공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5·18 발언” 도태우, 공천 재검토 해달라”

한동훈, 국힘 공관위에 요청…“5·18, 북한군 개입” 발언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구 중·남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검토’를 언

급한 것은 도 변호사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선 광주 동남·을에 공천된 박은식 비대위원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이 도 변호사 발언을 공관위가 걸러내지 못한 점, 도 변호사 사과문의 진정성 등을 놓고 우려를 제기하며 지도부 간 격론이 벌어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인물”이라며 “5·18 북 개입설을 주장한 도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도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저출산 등 총선 10대 공약 선정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 힘입니다. 지금! 합시다’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정책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하는 방안이 집중해 만들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해 집중했다”며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슬로건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이재명은 합시다’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 고려되거나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여당으로서 바로 실천한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발표했던 공약 중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기조에 10대 공약을 뽑았다. ▲ 일·가족 모두 행복 ▲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킴 ▲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외에 발표했던 것과 저희가 접수했던 정책 제안은 다음 주 초 월요일에 출간 예정인 정책 공약집에 수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도서 19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토론회 광주·전남 공동 개최 찬반 분분

시 “형평성 안 맞아, 단독 개최 건의”…도 “공동·단독 상관없이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3개월째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광주·전남 공동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며 광주·전남 개별 개최를 건의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지난달 13일 (기자) 차담회를 통해 호남 민생을 살펴달라고 광주 민생토론회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미개최 지역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만 남았는데 실무 추진 상황을 종합하면 광주 민생 토론회를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

어 보인다”며 개별 개최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공동 민생토론회 개최 명분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정부가 힘도 쓰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거나 시도지사와 무안군수 등이 모일 수 있다면 합리적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실무 추진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함께할 이유나 과정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는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군공항 이전, 5

·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지역 내 산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려 했다”면서도, “당면 현안이 전혀 다른 광주·전남에서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계획대로 진행(참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민생토론회 보이콧,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인데도, 강 시장은 민생토론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광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시장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 이상 광주를 불행하게 이끌어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김지을·박진표 기자 dok2000@

## 총선 브리핑

# 김윤 “광주를 융복합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국힘,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윤 예비후보는 11일 “광주의 새 희망이, 힘이 되겠다”며 “광주를 잘차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 세력이 보낸 계엄군과 싸웠다. 민주주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소년시절 광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 광주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호남은 임진왜란, 6·25전쟁, 5·18민주화운동 등 말할 뻔한 나라를 세 번이나 구했다”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자.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김대중 정신으로 무장시키겠다”고 강조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쟁하는 두 정당일 뿐”이라며 “광주를 새 인물문명 창조를 선도하는 융복합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광주 도심 하천-양동복개강가 생태복원 ▲영산강변 서창에 해외 교민들을 위한 ‘귀향마을’ 조성 ▲헬스·뷰티 산업 육성 ▲풍암호수 수량 보존·수질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광주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권당 국민의힘을 머슴처럼 부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